

안무창작을 위한 스코어 워크숍

이민경

07.21.(화) ~ 07.22.(수) 18:30 ~ 21:30 / 서울무용센터

가장 전형적인 신체 움직임의 전달방식인 시각적, 직접적 소통이 아닌
기호/언어라는 매개 및 해석을 통한 안무의 접근은 어떠한 다른 과정과
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?

첫 번째 워크숍을 통해 그 자체가 창작물임과 동시에 또 다른 창작을 위한
도구이기도 한 스코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, 그 기능과 역할의 변천사를
살펴본다. 이본 레이너, 머스 커닝햄 등 현대 무용수들이 사용했던
스코어를 살펴봄, 스코어와 안무 사이의 상관관계를 탐구해본다.

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조금 더 실천적인 작업을 통해 스코어에 대해
탐구한다. 조나썬 버로우, 안느 테레사 드 키에스마커, 데보라 헤이 등의
현대 안무가들의 스코어를 통해 안무의 구체적인 예시들을 분석 및
해석해 직접 실천해보며, 이를 통해 스스로의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
스코어도 창조해본다.

